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세미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현황과 과제

학술세미나행사 진행 세부순서

식전행사

14:40 ~15:00	공연1 : 유네스코 양상블 공연2 : 북초등학교 바이올린 연주
--------------	---------------------------------------

학술세미나

15:00 ~15:05	개회 및 국민의례
15:05 ~15:15	내빈 및 발표자 소개
15:15 ~15:30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 인사말 축사 및 격려사
15:30 ~16:30	주제발표 발표자 :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주 제 : 기업사회공헌의 현황과 과제
16:30 ~16:35	무대정리
16:35 ~17:25	토론 사 회 :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양원찬 (사단법인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유병택 (품질재단 이사장, 전 두산이사회회장, 하나금융지주이사회회장) 신동재 (사단법인위스타트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강은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7:25 ~17:30	마무리 및 폐회

기업 사회공헌의 동향과 과제

-정직하게 벌고 아낌없이 나누었던 김만덕 할머니를 그리며-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1. 기업사회공헌의 최근 동향

- ▶ 기업의 사회공헌은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고객의 신뢰 구축,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 근자에 와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 활동 전반에
체화된 경영전략의 일부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영전략으로 발전, 기업의 경영전략, 비즈니스 현장에 일체화.
-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나 자국 내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2. 세상은 변하고 있다

20세기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대

정보화혁명으로 세상이 달라졌다.

다수의 일반 시민이
이전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힘의 균형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소비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대두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1999년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 제안, 이듬해 채택

3. 증폭되는 시민들의 불만

롯데 형제의 난

땅콩 회항

제약회사 오너의 갑질

영화 ‘베테랑’의 흥행

2008년 빌 게이츠,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

“기업이 돈을 버는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외되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는 인식 확산

기업들도 기부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 노력

4.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의 대두

나쁜 회사들이 용인되던 시대는 끝났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휴먼 네트워크의 강화로, 사람들은 나쁜 회사를 직접 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특정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불만에 가득 찬 직원과 소비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굿 컴퍼니》에서 -

5. 사회공헌은 왜 하는가?

▶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윤리적, 법적, 상업적, 공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수준 또는 초과하는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시민정신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 =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필 나이트 나이키 설립자**

“21세기에 나이키를 비롯한 여타 모든 글로벌기업들은 그 성과를 평가 받을 때 매출 및 이익의 증가와 똑같은 비중으로 인간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 **하비 골럽 전 아메리칸 Express 회장**

“좋은 일만 하면 사업도 잘된다. 기업이 해당지역사회에 이익을 되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즈니스 면에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AE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탁월한 인재들을 흡수하는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한다.”

▶ **윌리엄 클레이 포드 Jr. 포드 CEO**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좋은 기업은 훌륭한 상품과 SVC를 제공한다. 위대한 기업은 상품과 SVC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그러나, 사회적 책임론에 떠밀려서 사회에 공헌할 필요는 없다.

7. 착하지 않은 기업의 종말

미국의 ‘엔론’ 사례

Tuesday, 29 January, 2002, 13:56 GMT
Enron losses 'off the scale'



New evidence suggests there may not be much of Enron left.



엔론 미국의 7대 기업, 미국-EU간 석유거래 20%를 점유하던 기업, 불과 15년 사이 성장률 1,000%를 기록한 기업, 그래서 부유자로부터 수백만 최고 혁신기업으로 불렸던 기업

‘월드콤’ 사례



6. 우리의 현실은?

▶ **우리기업의 사회 공헌**

- 울며 겨자먹기식 사회공헌
- 유행을 따라가는 사회공헌
- 면죄부를 얻기 위한 기부
- 순수기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기부

▶ **기업의 공헌 vs 기업가의 공헌**

▶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공헌은 있어도 기업가의 공헌은 드물다.**

일본의
‘유끼지루시(雪印)’ 사례



한국의
‘동양그룹’ 사례



신뢰를 잃으면 생존이 어렵다

기업은 착하면 안 되는 것일까?

공익과 기업의 이익은 공존 할 수 없는 것일까?

공익과 기업 이익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일이
미래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
-필립 코틀러-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은 '존경 받는 기업' 이고
존경 받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초우량 기업이다.

- ▶ GE는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 GE펀드를 조성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보건, 고등교육, 지역사회 자활 서비스, 불우 어린이 지원
 - 사내 봉사단체인 '엘펀'은 세계 각국에서 5만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봉사활동
- ▶ 마이크로 소프트는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사회공헌 이념으로 하여 시민, 환경, 문화, 예술 분야 등을 주로 지원
 - 빌 & 멜린다 재단에 빌 게이츠 30조 기부
 - 61조 재산 중 100억을 제외한 전 재산 기부 선언



8. 경제민주화 논쟁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경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그리하여 소비자로서
줄기차게 기업들을 키워 온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고루 퍼지고,
또한 튼튼한 복지사회가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조정래의 소설 《허수아비춤》 서문에서 -

▶ 사회 공헌은 경영전략이자 투자이다.

• 경영전략 차원 - 도덕성의 경쟁력

: 사회공헌으로 얻는 이익

- 판매율과 시장점유율의 증가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기업이미지와 영향력 강화
- 인재의 확보 및 유지에 유리
- 회사 운영비용의 감소
- 투자매력도 및 위험 회피율 증가

▶ 경쟁력의 요건

- (1) 원가우위
- (2) 차별화
- (3) 집중화

▶ 핵심역량의 개발

고객이 초점이다.
고객만족 → 고객감동 → 고객성공

· 고객성공의 요소

- (1) 상품
- (2) 판매, 서비스
- (3) 기업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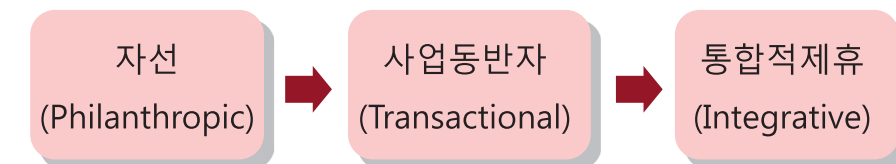
· 지속가능 경영은 핵심역량과 경쟁력의 원천

9.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 것인가?

▶ 사회공헌도 성공하는 투자라야 한다.

▶ 사회공헌 담당자의 중요성

1) 파트너십의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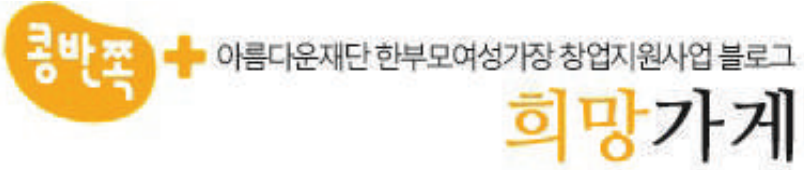
기업과 NPO간 파트너십 발전 과정

2) 기업의 협력방법

- 자금지원
- 물적지원
- 인적지원
- 정보적 지원
- 복합적 지원

3) 사회공헌 활동 성공사례

▶ 아름다운재단 – 아모레퍼시픽의 “희망가게사업 ”



▶ 아름다운재단 – 교보생명의 “이른둥이 지원사업 ”



10. 결 론

향후의 기업사회공헌활동은 전략, 투자,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 글로벌 지역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자(Social 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로!!

▶ 루트임팩트 – 현대해상화재보험의 “D-well” 공동체



▶ 루트임팩트 –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사회적기업가 교육사업 ”



“그깟 돈이 우리 동포 한 명의 목숨 값이나 될 것 같으냐? 재물은 다시 모으면 되는 것.이 시각에도 서서히 죽어가는 제주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제발 서둘러다오”

‘숨비소리 – 조선의 거상 김만덕’ 중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은혜로운 빛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